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자폐성 장애학생들의 직업적 성공요소와 직무생산 능력에 미치는 효과

김길태*

한국육영학교 교사·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재활학과 박사과정

정훈영**

한국육영학교 교사·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박사수료

김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자폐성 장애학생들의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직업적 성공요소들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정서장애 Y특수학교의 자폐성 장애학생 1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사회 5곳(도서관 1곳과 우체국 4곳)에서 2009년 3월 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총 43주 동안 주당 5회, 1일 4시간의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실시한 후 직업적 성공요소 4개 영역에 대하여 평가지를 통한 사전-사후 검사를 하였다. 연구 결과는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직업적 성공요소 중 개인적 요소, 사회적 요소, 직업능력 요소, 장애인 고용인식 요소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현장중심 직업교육은 일반화 및 전이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현장 적응력이나 응용능력이 떨어지는 자폐성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임이 검증되었다.

주제어 : 자폐성 장애, 현장중심 직업교육, 직업적 성공요소, 직무생산 능력

* 제1저자(kt007hk60@hanmail.net)

** 교신저자(isarang75@gmail.co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의 직업교육은 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신장시키고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가·사회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잠재된 노동력을 적극 계발하고 활용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하나의 직업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생계유지, 인간 개성의 발휘, 사회인으로서의 책임이 동시에 내포되어야 하며, 노동의 계속성이 뒤 따라야 한다(조인수, 2005). 2008년 2월 개정된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구체성과 실제성의 부족, 체계성과 다양성의 미흡을 비판하면서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직업부문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종전 특수학교의 공과중심의 직업교육을 현장중심 직업교육 활동이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변화 되었다(박희찬, 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서도 중증의 장애인들도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신지체나 정서장애, 자폐성 장애를 지닌 발달장애 학생들의 직업교육은 이들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산업체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습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박혜영 2010). 특히 자폐성 장애학생들의 학교 졸업 후 직업교육의 성과나 취업된 장애학생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더욱 열악한 수준이다. 대부분 직업재활시설에 보호고용상태로 머물러 있고, 2차 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업무에 제한되어 있으며 기본생계를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임금이 제공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나운환, 2007; 박승희, 2008; 오길승, 2005). 2009년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보고에 의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도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9.9%로 전체 장애인 41.1%에 비해 1/4 수준이며, 고용률도 전체장애인 37.7%에 비해 8.8%로 4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자폐성 장애 학생들의 직업재활이 낮은 것에 대해 이상진(2001)은 자폐성 장애학생들의 사회성 부족, 사회적 자극에 대한 무반응, 자기 자극행동, 언어와 의사소통의 문제가 그들의 고용가능성을 과소평가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영미(2005), 정동영 외(2006)가 지적했듯이 현재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직업교육 환경은 대부분 구조화 되어있고, 변화가 없는 학교 환경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공과 중심의 직업교육이다. 이러한 교육환경 아래에서는 자폐성 장애학생들의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특성들만 더욱 고착화 시킬 뿐이다. 또한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과의 시설이나 운영형태, 수업내용들도 실제로 장애학생들의 직업흥미나

능력, 적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일반화 및 전이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폐성 장애학생들에게 취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직업기능 및 사회적응능력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환교육모델을 제시한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통합된 환경에서 장애학생들이 교육받는 것이 성공적인 전환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Sitlington 등(2006)은 현장중심실습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직업현장을 직업 체험하게 한 후 자신의 적성과 진로 및 흥미의 적합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는 현장실습 장소 확보의 어려움, 지역사회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낮은 인식, 구체적인 현장중심 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의 부재 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정민호, 2009).

작금의 특수교육 현실에서 자폐성 장애학생들의 학교에서 사회로의 직업을 통한 효과적인 전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들이 연계된 현장중심 직업교육의 개발과 연계과정 그리고 현장중심 직업교육 후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실증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전환에 어려움이 있는 자폐성 장애학생들에게 현장중심 직업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의 유관기관 5곳을 선정하여 43주간의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직업적 성공요소(개인적 요소, 사회적 요소, 직업 능력 요소, 장애인고용인식 요소)와 직무생산 능력(직무생산성, 오수행률)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의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자폐성 장애학생의 직업적 성공요소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가?

둘째,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자폐성 장애학생의 직무생산능력 습득과 유지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가?

2. 용어의 정의

1) 자폐성 장애학생

자폐성 장애학생이란 소아정신과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DSM-IV-TR(2000)에서 자폐증으로 판정된 정서장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현장중심 직업교육

현장중심 직업교육이란 자폐성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와 정식 협약을 맺은 지역사회 내 기관, 시설 등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활동을 말한다.

3) 직업적 성공요소

직업적 성공요소는 장애인이 취업에 성공하는데 공헌하는 주요한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직업적 성공요소들을 개인적 요소, 사회적 요소, 직업능력 요소, 장애인 고용인식 요소들로 4개 영역으로 정의하였다(구인순, 2007; 박주영, 2003; 임경원, 2006; 최은영, 200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선발과정은 1차로 ‘사전직무수행기능평가표’에 따라 6개 학급의 담임교사들로부터 17명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 그중 직무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문제행동이 있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학생들 2명을 제외하였다. 2차에서는 1차에서 뽑힌 15학생들에게 S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능력평가센터에서 실시했던 직업능력평가소견서 결과를 참고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최종적으로 3차에서는 전환교육과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이 참여하는 전환교육협의회를 통하여 최종 11명을 선발하였다. 1차에 사용되었던 ‘사전직무수행기능평가표’는 우체국과 도서관에서 필요한 필수직무수행기능들과 이동능력, 문제행동, 병력, 특이행동 등의 총 25문항으로 된 사전체크리스트 형식의 평가지이며, 2차에서 사용된 S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능력평가센터에서 실시한 직업능력평가는 PPVT(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 : 그림 어휘력 검사), Valpar #17 PVRB(Pre-Vocational Readiness Battery : 직업준비평가), BRS(Behavioral Rating Scale : 행동평가), Micro-Tower(병뚜껑 따기), GVAT(General Vocational Aptitude Test : 일반 직업적성검사), GATB(General Aptitude Test Battery : 일반 직업적성검사), TAP(Talent Assessment Program : 색깔변별), K-MAND(McCarron Assessment Neuromuscular Developme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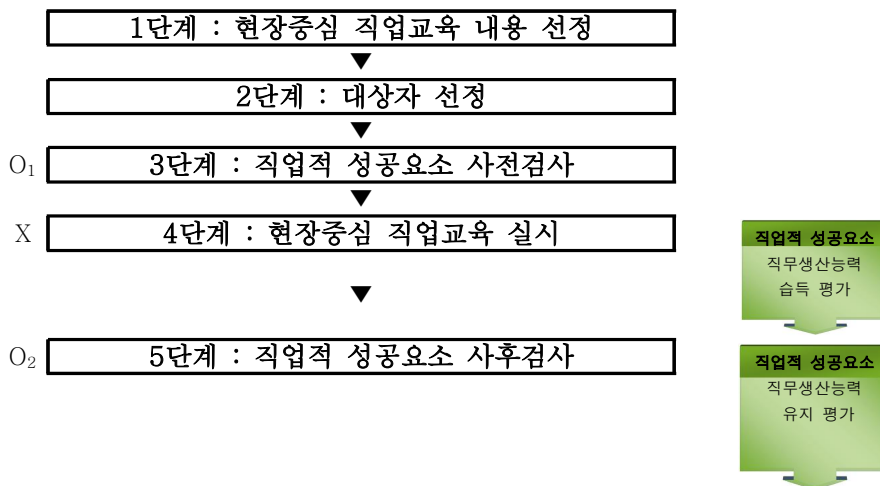
운동성 검사), CIS(Community Integration Skills : 지역사회적응검사) 등의 진단 도구들을 통한 사회진단, 심리진단, 직업진단 등의 검사들이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순번	학생	나이	성별	장애 유형	직업평가 결과	순번	학생	나이	성별	장애 유형	직업평가 결과
1	A	22	남	자폐2급	지원고용 수준	7	G	20	남	자폐1급	보호고용 중상위 수준
2	B	22	여	자폐1급	보호고용 중위수준	8	H	18	남	자폐2급	보호고용 상위수준
3	C	22	남	자폐1급	직업적응 훈련수준	9	I	18	남	자폐2급	직업적응 훈련수준
4	D	21	여	자폐1급	보호고용 중위수준	10	J	18	남	자폐2급	지원고용 수준
5	E	21	남	자폐1급	지원고용 수준	11	K	18	남	자폐2급	보호작업 중위수준
6	F	21	남	자폐1급	보호고용 상위수준						

2.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문헌조사, 지역사회 자원 및 적합 직무 조사, 현장중심 직업교육 연계 기관 협약식에서부터 현장중심 직업교육 내용 선정, 대상자 선정, 직업적 성공요소 사전검사, 현장중심 직업교육 실시, 직업적 성공요소 사후검사까지 5단계에 걸쳐 10개월간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 설계 및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설계 및 절차

3. 연구 기간 및 장소

본 연구는 준비기간, 실행기간, 정리기간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준비기간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실행기간은 2009년 3월 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총 43주로 하였다. 정리기간은 2010년 1월 4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장소는 총 5곳으로 도서관 1곳과 우체국 4곳에서 실시하였다. 도서관은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SP도서관이며, 우체국은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분당구에 소재한 SP우체국, KN우체국, KD우체국, BD우체국이다. 자세한 연구 기간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기간

기 간	내 용	목 표	단 계
2008. 4	문헌 조사	적합 직무 및 직종 탐색	준비
2008. 5	지역사회 자원조사	장애인고용인식 조사 지역사회 연계 기관 탐색	
2008. 8	적합 직무 및 연계기관 선정	적합 직무 : 우체국 우편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연계 기관 : 도서관 1곳, 우체국 4곳	
2008. 9	현장중심 직업교육 로드맵 설정	현장중심 직업교육 진행절차 계획	
2008. 10	협력기관 연계 협약식	송파도서관, 송파우체국, 강남우체국, 강동우체국, 분당우체국 등 5곳 협약서 교환 및 협력기관 부착	
2009. 1	현장중심 직업교육 프로그램 구안 및 계획	현장중심 직업교육 내용 선정 연구 대상자 선정 직무보조원 선정 연계 기관 협력교사 선임 학부모 협의회 개최	
2009. 3	오리엔테이션 사전검사	현장배치기관 적응 직업적 성공요소 사전검사 실시 (동료근로자, 직무보조원, 특수교사)	실행
2009. 4	현장중심 직업교육 실시	현장중심 직업교육 실시 특수교사 지도 직무생산량, 이수행량 평가 (일일작업수행일지)	
2009. 10	사후검사	직업적 성공요소 사후검사 실시 (동료근로자, 직무보조원, 특수교사) 특수교사 지원 소거	평가
2009. 12	직무생산능력 유지 평가	특수교사 지원 소거 후 직무생산량, 이수행량 유지 평가	
2010. 4	연구 보고서 작성	직업적 성공요소 평가 분석 직무생산 능력 평가 분석	정리

4. 현장중심 직업교육 내용

현장중심 직업교육의 내용은 크게 직업생활, 직업준비, 직업기능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직업생활과 직업준비 부분은 2008년 2월에 개정된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직업부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직업기능 부분은 협력교사와 협의하여 실제 우체국과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직무들을 중심으로 과제 분석하여 구성하였다. 현장중심 직업교육 내용을 선정하기 위하여 1차로 특수교사 2인이 기본교육과정 직업부분을 근거로 직업생활과 직업준비 내용을 선정하였고, 2차로 협력교사와 협의하여 직업기능 부분의 내용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현장중심 직업교육 내용들은 장애인 직업재활 경력 3년 이상의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팀장 1명과 보호작업장 담당교사 1인, 직업교육 교사 2인, 각 기관 협력교사가 검토하여 최종 현장중심 직업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현장중심 직업교육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현장중심 직업교육 내용

영역	목표	항목
직업생활	직업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기능을 익히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상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청소하기
		단정한 옷차림하기
		적절한 대인관계 유지하기
		금전 관리하기
		전화예절 익히기
		지역사회 이동하기
		여가 생활하기
직업준비	직무 관련 신체적 기능, 직무기초, 기능과 태도 등을 익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감각 기관의 정보 활용하기
		직무 관련 기초 신체 기능 강화하기
		직무 관련 기초 학습 기능 익히기
		작업 도구 활용하기
		정보통신 활용하기
		직업 탐색하기
		직장 생활의 규율과 태도 익히기
직업기능 (우체국)	우편물 구분과 관련된 기능을 익혀 여러 가지 우편물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우체국 시설 알기
		우편물 종류 및 작업도구 알기
		도착 우편물 구분하기
		팀(동)별 우편물 구분하기
		집배원별 우편물 구분하기
		반송우편물 구분하기
직업기능 (도서관)	청구기호에 따라 반납도서를 정리할 수 있다.	도서관 시설 알기
		도서관 작업 도구 익히기
		사전 분류하기
		한국십진분류표 알기
		청구기호의 따른 서가 배열하기
		과본 수리하기

* 부록 1 참조.

5. 현장중심 직업교육 방법

직업생활, 직업준비, 직업기능으로 나누어진 현장중심 직업교육 내용은 많은 양의 교육과정을 현장에 중점을 두고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실제 취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그리고 실제 직업기능 부분에 교육을 담당할 지역사회 연계기관과의 밀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구조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실제로 직업기능이 좋아서 주어진 양의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한다 할지라도 직업생활 및 직업준비 영역의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용으로 전이되거나 직업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관련 기관 및 교사, 담당자들의 밀도 있는 협력을 통한 교육내용 도출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현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이론은 교과서 등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개념과 원리를 습득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실습은 이론을 토대로 지식이나 기능의 활용 및 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하였다.

우선 본 연구자를 포함한 담당교사 1인이 각 영역에 대한 세부내용별 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석한 내용들을 복지관 및 취업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의 협의를 통하여 현장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검토된 과제분석 내용은 관련자 협의회를 통하여 일관되고 공통된 교육적 접근을 위한 의견교환 과정을 가졌다. 관련자 협의회는 담당교사, 학생의 담임교사, 학부모, 직무보조원 등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별 중점지도 내용을 조율하였다. 학교 수업 내용 중에서는 담임교사의 주도하에 교육과정 통합운영을 통한 직업생활 및 직업준비 영역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업 현장에서는 담당교사의 지도아래 직업기능 영역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시로 일일작업수행일지를 통하여 대상 학생의 현장에서의 직무수행 상황 및 문제행동, 수정·보완할 영역의 교육내용들을 체크하여 월 1~2회의 평가회를 통해 담임교사 및 직무보조원들과 관련 내용들을 공유하였다. 가정에서 지도할 부분은 따로 정리하여 수시로 학부모와 연락을 취하여 교육이 필요한 영역의 내용들이 보완·수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중심 직업교육은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43주 동안 1일 4시간, 주 20시간 실시하였다. 오후에 현장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오전에 학교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오전에 현장교육이 있는 경우 오후에 학교로 복교하여 학교 수업에 참여하였다. 이때, 직무보조원이 학생들의 이동기술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현장 배치 교육 및 훈련의 경우 최초 1개월 동안은 각 기관에 배치된 대상 학생들을 본 연구자와 특수교사 1명이 1일 4시간 동안 직무 수행을 중심으로 교사 시연, 모델링, 학생 반복실습 등을 통하여 직무수행능력을 훈련하였으며, 그밖에 기관 이용기술이나 직장예절의 경우 쉬는 휴식시간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교육하도록 하

였다. 5개 기관은 교사 2인이 순차적으로 배치하였다. 1개월 후에는 하루 1-2시간씩 순회 지도를 실시하면서 직무보조원을 두어 직무를 계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였다.

최초 1개월 후라도 직무생산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와 특수교사가 다시 집중지도를 1-2주 동안 실시하였으며, 매회 일일작업 수행일지를 기록하여 작업수행정도, 문제행동 발생 및 중재 방법, 비장애 근로자들과 상호작용 상황들을 기록하여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사후학습 등에 활용하였다. 각 기관별 교육시간 및 담당교사는 <표 4>와 같다.

<표 4> 교육시간 및 담당교사

배치장소	대상 학생	교육시간	직무보조원	특수교사	협력교사
SP도서관	F, G	14:00~18:00	조00	김○○	어린이실장 어문학실장
	B, K	14:00~18:00	주00 안00		
SP우체국	D, J	12:00~16:00	임00	김△△	집배실장
KD우체국	A, C	12:00~16:00	김00	김△△	집배실장
KN우체국	H, I	09:30~14:30	김00	김○○	집배팀장
BD우체국	E	10:00~14:00	강00	김○○	집배팀장

6. 측정 도구

1) 직업적 성공요소 평가

직업적 성공요소는 2006년 유정혜의 연구에서 제시한 취업관련 성공요소들과 Chamberlain(1988)의 연구와 Campbell 등(1987)의 연구에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성공에 공헌하는 요인들에서 추출하였으며, 이밖에도 최은영(2002), 임경원(2006), 구인순(2007) 등의 연구에서 개인적 요소, 박주영(2003), 임경원(2006)의 연구에서 사회적 요소, 박주영(2003), 임경원(2005), 구인순(2007)의 연구에서 직업능력 요소, 박명숙(2002), 김주근(20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 등에서 장애인고용인식 관련 요소들에서 추출하여 재구성하였다. 이들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4개 영역 총 52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문항들을 중심으로 각 참여 학생들을 평가하게 될 지역사회 기관들의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재 서술하여 수정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92)하여 최종 4개 영역 4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44문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담당자 1명,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전문가 2명,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담당교사 3명,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취업지원 담당자 1명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타당도

점검과정을 통해 우체국 및 도서관 근로자들이 평가하기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7명의 직업재활 전문가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 3명이었고, 대학 졸업자가 4명이었으며, 현장 직업재활 경력이 2-5년이 4명, 5-15년 경력이 3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평가지의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개인적 요소가 10점~50점, 사회적 요소 11~55점, 직업능력 요소 12점~60점, 장애인고용인식 요소 11~55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그렇지 않다” (2점) - “보통이다” (3점) - “그렇다” (4점) -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Scales(5점 척도)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적 성공요소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업적 성공요소 문항은 <표 5>와 같다.

<표 5> 직업적 성공요소 문항

영역	성공 요소	추출 근거
개인적 요소	① 단정한 용모, 옷차림 ② 읽기·쓰기·학습 능력 ③ 태도·정서·신체적 능력 ④ 성실성 ⑤ 독립생활	유정해(2006) Chamberlain(1988) Campbell(1987) 임경원(2006) 구인순(2007) 최은영(2002)
사회적 요소	① 대인간 상호작용 ② 의사소통 기술 ③ 애사심 ④ 질문에 대한 반응 ⑤ 적절한 사회성 ⑥ 상황에 맞는 인사 ⑦ 원만한 인간관계 ⑧ 협력 작업	유정해(2006) Chamberlain(1988) Campbell(1987) 임경원(2006) 박주영(2003)
직업능력 요소	① 생산성 ② 새로운 작업 상황에 대한 적응 ③ 작업공정의 이해 ④ 지시에 대한 반응 ⑤ 독립작업 수행 ⑥ 능숙한 직무수행능력 ⑦ 안전수칙 이행 ⑧ 오류판별·수정 ⑨ 안전한 작업도구 사용 ⑩ 일에 대한 지속성·집중력	유정해(2006) Chamberlain(1988) Campbell(1987) 임경원(2006) 구인순(2007) 박주영(2003)
장애인고용 인식 요소	①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인식 ② 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 ③ 장애인고용으로 인한 손익에 대한 인식 ④ 도움 제공에 대한 인식 ⑤ 자기 고집성에 대한 인식 ⑥ 정상적인 생활에 대한 인식	김주근(20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08) 박명숙(2002)

* 부록 2 참조.

2) 직무생산 능력 평가

(1) 직무생산량

본 연구가 진행된 우체국과 도서관에서 취업과 연관된 관리자들이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생산량을 비장애인 기준 70%, 오류률 5% 이내를 제시하였다. 이에 비장애인 생산량의 70%와 비교하여 직무생산량을 평가하였다. 먼저 비교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비장애인 근로자를 선정하여 5일 동안 학생들이 수행하는 직무와 동일한 직무를 매회 30분간 수행한 생산량을 측정하였다. 5일 동안 수행한 평균을 산출하여 비장애 근로자의 비교 기준 생산량으로 설정하였다. 학생들의 생산량은 매회 직무보조원에 의해 첫 직무 수행 1시간 수행 후 1회 휴식을 가진 다음, 2회기 때 30분 동안 1일 1회 측정하도록 하였다. 한 주간 5일의 평균 생산량을 산출하였고, 이후 한 달의 평균 생산량을 산출하여 매월 비장애인 근로자 비교 기준 생산량과 비교·분석하였다.

• 공식 : 전체 생산량 / 시간

(2) 오수행량

일일작업수행일지를 통한 매회 기록을 통하여 오류률 5% 미만을 목표로 측정하였다. 생산량 측정과 마찬가지로 매회 직무보조원에 의해 정해진 시간을 두고 수행량을 30분 단위로 측정하였다. 30분 동안 수행한 전체 생산량 대비 오류량을 계산하여 산정하였다. 한 주간 5일의 평균 오류률을 산출하였고, 이후 한 달의 평균 오류률을 산출하여 월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 공식 : $\frac{\text{잘못 수행한 직무수행량}}{\text{전체 직무생산량}} \times 100$

7. 자료 처리

1) 평가자 간의 신뢰도 평가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를 진행하였고 사전검사에서부터 사후검사까지 본 연구자 외에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 1명과 직무보조원 7명, 연계기관

협력교사 6명, 동료근로자 6명이 참여하였다. 평가자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직무보조원과 현장 동료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적 성공요소에 대한 검사 방법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시 지도하였다. 직무보조원들의 경우 현장 배치 전 6시간의 교육 중 일일작업수행일지 기록방법 및 직업적 성공요소 평가지 검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동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현장중심 직업교육 전(前)과 직업교육 중(中) 수시로 학생들의 행동특성 및 직업교육 진행 상황에 대한 협의시간들을 통하여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평가자간 평가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자간 신뢰도가 90% 이상일 때 평가에 들어갔다. 평가자간 신뢰도는 다음 공식에 의해 구하였으며 평가자간 신뢰도는 측정된 횟수에 대한 측정된 이행 정도가 일치된 횟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연구 전에 실시한 평가에서 연구자와 특수교사 간의 측정 신뢰도는 92.2%~95.0%로 평균 신뢰도는 93.6%로 나타났고, 직무보조원 간의 측정 신뢰도는 90.8%~93.5%로 평균 92.15%로 나타났다.

$$\text{평가자간 신뢰도(\%)} = \frac{\text{일치된 횟수}}{\text{전체 횟수}} \times 100$$

2) 프로그램 및 시간 효과의 통제

프로그램 및 시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무생산능력의 습득과 유지를 측정하는 기간을 2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4월부터 9월까지 특수교사의 지원 중심으로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진행하면서 직무생산능력 습득 변화들을 측정하였고, 2단계는 10월부터 12월까지 특수교사의 지원을 소거한 후 인위적인 중재 없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직무생산능력 유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직무생산능력의 습득과 유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익숙함의 효과가 아닌 현장중심 직업교육에 대한 효과임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자폐성 장애학생들의 직업적 성공요소들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5가지 직업적 성공요소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 중 개인적 요소, 사회적 요소, 직업능력 요소, 장애인고용인식 요소 등의 4가지 요소는 직업적 성공요소 평가지를 통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검증방법으로는 비모수통계방법인 Wilcoxon Matched-

Pairs Signed-Ranks Test(우수명, 200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직업적 성공요소 중 직무생산능력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직무생산량과 오수행량을 시간단위(30분)로 측정하여 비장애인 비교 기준, 취업가능 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SPSS 12.0/Win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전-사후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자폐성 장애학생의 직업적 성공요소와 직무생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업적 성공요소에 미치는 효과

1) 개인적 요소의 변화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직업적 성공요소 중 개인적 요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개인적 요소 검증 결과

영역	검사 집단	N	사전		사후		Z	유의 확률
			M	SD	M	SD		
개인적 요소	동료근로자	22	2.77	.46	3.81	.65	-4.199 ^a	.000
	직무보조원	11	2.83	.35	4.05	.43	-3.065 ^a	.002
	특수교사	11	3.10	.65	3.91	.61	-3.065 ^a	.002

p<.01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적 요소에 대한 대상 학생들의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에 참여했던 동료근로자 평가는 평균이 2.77(SD=.46)과 3.81(SD=.65), 직무보조원 평가는 2.83(SD=.35)과 4.05(SD=.43), 그리고 특수교사 평가는 3.10(SD=.65)과 3.91(SD=.61)로 나타났다. 직업적 성공요소 중 개인적 요소에

대한 대상 학생들을 평가했던 검사 집단 모두 평균이 증가하였고,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사회적 요소의 변화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직업적 성공요소 중 사회적 요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사회적 요소 검증 결과

영역	검사 집단	N	사전		사후		Z	유의 확률
			M	SD	M	SD		
사회적 요소	동료근로자	22	1.78	.57	3.37	.75	-4.199 ^a	.000
	직무보조원	11	1.58	.31	3.77	.55	-3.064 ^a	.002
	특수교사	11	2.32	.45	3.16	.58	-3.061 ^a	.002

p<.01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요소에 대한 대상 학생들의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에 참여했던 동료근로자 평가는 평균이 1.78(SD=.57)과 3.37(SD=.75), 직무보조원 평가는 1.58(SD=.31)과 3.77(SD=.55), 그리고 특수교사 평가는 2.32(SD=.45)와 3.16(SD=.58)로 나타났다. 직업적 성공요소 중 사회적 요소에 대한 대상 학생들을 평가했던 검사 집단 모두 평균이 증가하였고,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직업능력 요소의 변화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직업적 성공요소 중 직업능력 요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직업능력 요소 검증 결과

영역	검사 집단	N	사전		사후		Z	유의 확률
			M	SD	M	SD		
직업능력 요소	동료근로자	22	1.78	.50	3.52	.79	-4.199 ^a	.000
	직무보조원	11	1.90	.42	3.93	.62	-3.059 ^a	.002
	특수교사	11	2.60	.35	3.80	.57	-3.064 ^a	.002

p<.01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능력 요소에 대한 대상 학생들의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에 참여했던 동료근로자 평가는 1.78($SD=.50$)과 3.52($SD=.79$), 직무보조원 평가는 1.90($SD=.42$)과 3.93($SD=.62$), 그리고 특수교사 평가는 2.60($SD=.35$)과 3.80($SD=.57$)로 나타났다. 직업적 성공요소 중 직업능력 요소에 대한 대상 학생들을 평가했던 검사 집단 모두 평균이 증가하였고,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장애인 고용인식 요소의 변화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직업적 성공요소 중 장애인 고용인식 요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 장애인 고용인식 요소 검증 결과

영역	검사 집단	N	사전		사후		Z	유의 확률
			M	SD	M	SD		
장애인고용 인식 요소	동료근로자	22	2.16	.48	3.68	.64	-4.198 ^a	.000

$p<.01$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고용인식 요소에 대한 대상 학생들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참여했던 동료근로자 평가는 2.16($SD=.48$)과 3.68($SD=.64$)로 나타났다. 직업적 성공요소 중 장애인고용인식 요소에 대한 평균이 증가하였고,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직무생산 능력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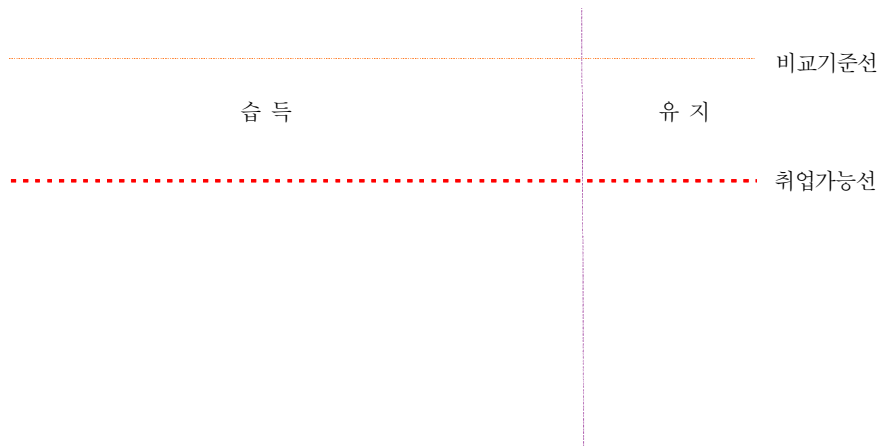
2009년 3월 30일부터 2009년 10월 1일까지 27주 동안은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직무생산능력 습득을 중점으로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진행되었으며, 2009년 10월 5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3주 동안은 특수교사의 간헐적 지원 소거를 통하여 습득된 직무생산능력이 유지되는지를 중점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 SP우체국

SP우체국은 3층 우편물류과에서 실시되었다. 현장중심 직업교육 직업기능에서 주로 수행한 직무는 3, 4종 대형 우편물을 동별 구분하는 작업이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2:00~16:00까지 4시간 참여하였다. 현장중심 직업교육 내용들은 특수교사가 지도하였으며 직무보조원이 보조자로 참여하여 일일작업수행일지를 매일 기록하였다. 대상 학생들의 직무생산능력은 매일 직무수행 1시간 경과 후 30분 동안 직무생산량과 오수행량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동료근로자 비교기준 생산량은 1,200개이며, 이에 대한 70% 수준인 840개가 취업가능 기준선으로 설정되었다. 대상 학생들의 월별 직무생산능력변화는 <표 9> 및 <그림 2>와 같다.

<표 9> SP우체국 월별 직무생산 능력 변화

대상 학생		월									
		4	5	6	7	8	9	10	11	12	
B	생산량 (개)	97	325	527	723	740	786	772	756	779	
	오수행량(개)	23	12	7	8	4	3	2	3	2	
K	생산량 (개)	78	265	310	460	612	670	672	680	671	
	오수행량(개)	17	6	3	2	2	0	0	1	0	



<그림 2> SP우체국 직무생산 능력 변화

SP우체국의 월별 생산량 변화를 살펴보면 현장중심 직업교육 후 3개월이 지난 7월에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후 큰 변화 없이 꾸준하게 약 750개 이상의 우편물 구분 작업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오수행량에 있어 2명의 대상 학생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2개월이 지난 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특수교사의 지도가 없어지는 10월 이후 직무생산량에는 거의 변화 없이 일정한 생산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료근로자 생산량 1,200개와 비교해서도 B의 경우 약 65%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K의 경우 55% 정도의 생산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KN우체국

KN우체국은 2층 우편물류과에서 실시되었다. 현장중심 직업교육 직업기능에서 주로 수행한 직무는 1, 2종 소형 반송우편물 구분하는 작업이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9:30 ~14:30까지 5시간 참여하였다. 현장중심 직업교육 내용들은 특수교사가 지도하였으며 직무보조원이 보조자로 참여하여 일일작업수행일지를 매일 기록하였다. 대상 학생들의 직무생산능력은 매일 직무수행 1시간 경과 후 30분 동안 직무생산량과 오수행량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동료근로자 비교기준 생산량은 2,286개이며, 이에 대한 70% 수준인 1,600개가 취업가능 기준선으로 설정되었다. 대상 학생들의 월별 직무생산능력변화는 <표 10> 및 <그림 3>과 같다.

<표 10> KN우체국 월별 직무생산 능력 변화

대상 학생		월									
		4	5	6	7	8	9	10	11	12	
H	생산량 (개)	118	346	628	713	786	818	820	805	812	
	오수행량(개)	25	9	5	7	1	0	0	0	2	
I	생산량 (개)	127	578	987	1,220	1,350	1,370	1,360	1,372	1,380	
	오수행량(개)	17	11	8	4	5	3	1	0	2	



<그림 3> KN우체국 직무생산 능력 변화

KN우체국의 직무생산량 변화를 살펴보면, 현장중심 직업교육 시작 후 4개월 지난 8월 이후 약 800개와 1,360개 정도의 일정한 양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오수행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8월 이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특수교사의 지원이 없어지는 10월 이후에도 꾸준한 생산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장애 근로자의 비교기준인 2,286개와 취업가능 기준인 1,600개와 비교해서는 I의 경우 34%정도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H의 경우는 약 59%의 생산량을 보여 둘 간의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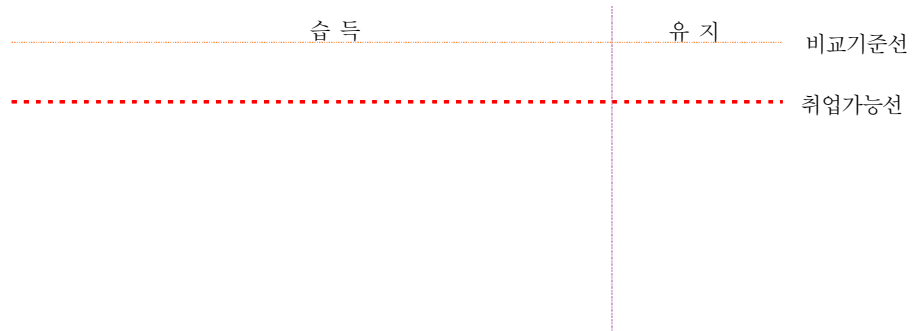
3) BD우체국

BD우체국은 3층 우편물류과에서 실시되었다. 현장중심 직업교육 직업기능에서 주로 수행한 직무는 3, 4종 대형 우편물을 동별로 구분하는 작업이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00~13:00시까지 4시간 참여하였다. 현장중심 직업교육 내용들은 특수교사가 지도하였으며 직무보조원이 보조자로 참여하여 일일작업수행일지를 매일 기록하였으며, 대상 학생들의 직무생산능력은 매일 직무수행 1시간 경과 후 30분 동안 직무생산량과 오수행량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동료근로자 비교기준 생산량은 1,008개이며, 이에 대한 70% 수준인 756개가 취업가능 기준선으로 설정되었다. 대상 학생들의 월별 직무생산 능력변화는 <표 11> 및 <그림 4>와 같다.

<표 11> BD우체국 월별 직무생산 능력 변화

대상 학생	월	4	5	6	7	8	9	10	11	12
	E	생산량 (개)	135	478	789	845	853	875	880	895
	오수행량(개)	12	5	3	3	2	1	0	1	0



<그림 4> BD우체국 직무생산 능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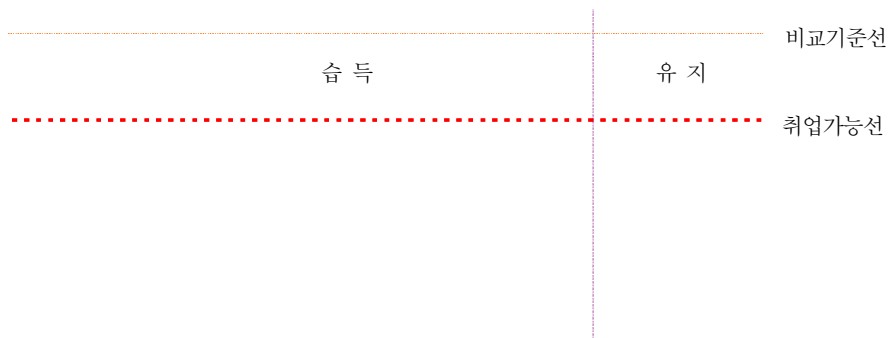
BD우체국의 직무생산량 변화를 살펴보면 현장중심 직업교육 2개월 후인 6월을 기점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여 이후 꾸준히 생산량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월 이후 약 860개를 육박했으며, 특수교사의 지원이 없어지는 10월 이후 유지 기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오수행량의 경우 7월 이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동료 근로자의 비교기준인 1,008개와 비교에서도 약 85%의 직무생산량을 보여 취업가능 기준인 756개 보다 높은 생산량을 나타냈다.

4) KD우체국

KD우체국은 2층 우편물류과에서 실시되었다. 현장중심 직업교육 직업기능에서 주로 수행한 직무는 1, 2종 소형 우편물을 집배원별로 구분하는 작업이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2:00~16:00까지 4시간 참여하였다. 현장중심 직업교육 내용들은 특수교사가 지도하였으며 직무보조원이 보조자로 참여하여 일일작업수행일지를 매일 기록하였다. 대상 학생들의 직무생산능력은 매일 직무수행 1시간 경과 후 30분 동안 직무생산량과 오수행량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동료근로자 비교기준 생산량은 1,975개이며, 이에 대한 70% 수준인 1,382개가 취업가능 기준선으로 설정되었다. 대상 학생들의 월별 직무생산능력변화는 <표 12> 및 <그림 5>와 같다.

<표 12> KD우체국 월별 직무생산 능력 변화

대상 학생		월	4	5	6	7	8	9	10	11	12
		A	생산량 (개)	234	559	985	1,273	1,290	1,310	1,287	1,305
오수행량(개)	15		8	7	5	2	0	1	2	0	
C	생산량 (개)	143	310	435	764	824	975	880	895	920	
	오수행량(개)	37	14	10	12	5	3	2	5	3	



<그림 5> KD우체국 직무생산 능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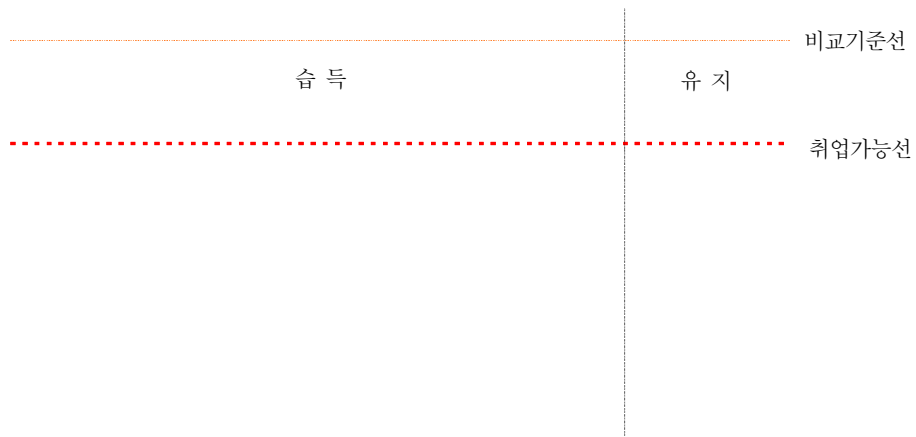
KD우체국의 직무생산능력 변화를 살펴보면 현장중심 직업교육 시작 후 약 3개월이 지난 7월부터 안정적인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A의 경우 약 1,300개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A의 경우 약 875개 정도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오수행량의 경우 현장중심 직업교육 4개월이 지난 8월 이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후 유지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동료 근로자 생산량 비교기준인 1,975개와 비교에서도 A의 경우 65%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C의 경우 44%의 생산량이 나타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5) SP도서관 어린이실

SP도서관 1층 어린이실에서 2명이 대상 학생이 참여하였다. 현장중심 직업교육 직업기능에서 주로 수행한 직무는 반납도서를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4:00~18:00까지 4시간 참여하였다. 현장중심 직업교육 내용들은 특수교사가 지도하였으며 직무보조원이 보조자로 참여하여 일일작업수행일지를 매일 기록하였다. 대상 학생들의 직무생산능력은 매일 직무수행 1시간 경과 후 30분 동안 직무생산량과 오수행량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동료근로자 비교기준 생산량은 125권이며, 이에 대한 70% 수준인 88권이 취업가능 기준선으로 설정되었다. 대상 학생들의 월별 직무생산능력변화는 <표 13> 및 <그림 6>과 같다.

<표 13> SP도서관 어린이실 월별 직무생산 능력 변화

대상 학생		월	4	5	6	7	8	9	10	11	12
		D	생산량 (개)	40	53	74	78	89	97	100	95
오수행량(개)	10		4	2	0	1	0	0	1	0	
J	생산량 (개)	32	45	67	87	82	78	80	75	82	
	오수행량(개)	19	8	6	3	0	2	3	1	2	



<그림 6> SP도서관 어린이실 직무생산 능력 변화

SP도서관 어린이실의 직무생산량 변화를 살펴보면 조00의 경우 9월 이후 평균 97권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D의 경우 평균 78권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오수행량에 있어서도 8월까지 꾸준한 감소를 보이다가 그 이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특수교사의 지원이 없어지는 10월 이후에도 안정적인 직무생산량과 오수행량을 보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동료 근로자 생산량 비교기준인 125권과 비교에서도 D의 경우 77%의 생산량으로 측정되어 취업가능 생산량인 88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J의 경우도 약 62%의 생산량으로 측정되어 취업 가능선에 가깝게 접근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6) SP도서관 어문학실

SP도서관 2층 어문학실에서는 2명이 대상 학생이 참여하였다. 현장중심 직업교육 직업기능에서 주로 수행한 직무는 반납도서를 정리하는 작업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4:00~18:00까지 4시간 참여하였다. 현장중심 직업교육 내용들은 특수교사가 지도하였으며 직무보조원이 보조자로 참여하여 일일작업수행일지를 매일 기록하였다. 대상 학생들의 직무생산능력은 매일 직무수행 1시간 경과 후 30분 동안 직무생산량과 오수행량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동료근로자 비교기준 생산량은 137권이며, 이에 대한 70% 수준인 96권이 취업가능 기준선으로 설정되었다. 대상 학생들의 월별 직무생산능력변화는 <표 14> 및 <그림 7>과 같다.

<표 14> SP도서관 어문학실 월별 직무생산 능력 변화

대상 학생		월	4	5	6	7	8	9	10	11	12
		F	생산량 (개)	36	53	59	68	71	74	80	81
오수행량(개)	7		2	0	2	0	0	0	1	0	
G	생산량 (개)	29	38	50	75	73	82	79	85	83	
	오수행량(개)	23	9	8	3	0	0	3	2	0	



<그림 7> SP도서관 어문학실 직무생산 능력 변화

SP도서관 어문학실의 직무생산량 변화를 살펴보면 현장중심 직업교육 후 꾸준히 증가하는 생산량을 보이다가, 9월 이후 점차적으로 안정적인 생산량을 보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F의 경우 9월 이후 평균생산량은 약 80권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G의 경우 약 82권의 생산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오수행량의 경우 8월 이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 동료 근로자 생산량 비교기준인 137권과 비교에서도 F의 경우 58%의 생산량을 보였으며, G의 경우 59%의 생산량을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자폐성 장애학생들의 직업적 성공요소와 직무생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직업적 성공요소 중 피고용인 측면인 개인적 요소, 사회적 요소, 직업능력 요소에서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은 자립생활과 관련된 개인적 요소와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회적 요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는 박경숙(2006)이 솔선과 수동성이 자기관리 영역의 적응행동에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지적능력과 적응행동에서 제한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학생들이 지역사회 내의 사업체에서 훈련받고 적응하는 지원고용체계에서 고용으로서의 전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진호, 2003)와도 일치한다. 자폐성 장애학생들의 특성상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 융통성의 결여 등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직무들을 일반화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이금옥, 2007; Olney, 2000). 또한 여러 행동문제들과 출·퇴근 기능이나 사회적 기술 및 독립생활기술들의 결여 등은 취업에 장애가 되었다. 이에 대해 정훈영, 서경희(2010)는 현재 우리나라 정서장애학교는 자폐성 장애학생의 핵심 증상 중 사회적 결여에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서장애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사회적 향상 프로그램과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이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상훈, 허석(2004)도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지역 사회 현장 경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졸업 후 진로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이 자폐성 장애학생들의 사회적 향상과 지역 사회 현장 경험을 제공해 주는 적절한 전환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직업적 성공요소 중 고용인 측면인 장애인고용 인식요소와 직무생산 능력에서도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인 ‘국회 내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고용창출 프로젝트’와 ‘대학 내에서 지적장애인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실행과 성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통하여 함께 일할 비장애인 동료근로자들의 장애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장애인들에게 자연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공단, 2009; 박승희, 2008). 장애인고용인식 개선의 문제는 단순한 이해교육 보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 경험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국가사무국(Bureau of National Affairs)에서 서비스직 고용인과 생산직 고용인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선행되는 작업의 질과 양이며(유정해, 2006), 한국장애인촉진공단(2001)의 2000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 채용 시 작업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임경원, 박승철(2005)도 높은 생산률이 직업 성공과 장기간의 직업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통해 생산량이 높아졌으며 이와 더불어 직무생산 능력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고용인에게도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자폐성 장애학생의 직업적 성공요소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

둘째,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자폐성 장애학생의 직무생산능력 습득과 유지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피고용인인 자폐성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고용인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 제언을 한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의한 연구 설계들을 통하여 현장중심 직업교육 효과성에 대한 더욱 명확한 검증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현장중심 직업교육에서 직무지도원(직무보조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생각할 때 특수교사나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대학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접근이 필요하다. 관련 대학이 학교의 현장중심 직업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과 훈련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인순, 정민예, 유은영, 이재신 (2007). 지적장애 근로자의 직업성공요인. 직업재활연구, 17(2), 55-75.
- 국립특수교육원 (2005). 특수학교(급) 졸업생의 진로현황 및 실태분석.
- 권영미 (2005). 정신지체 특수학교 직업교육교사의 전환교육 인식수준.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주근 (2006). 고용주가 인식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 논문,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김진호 (2003). 특수교육 분야에서 본 현행 성인직업재활체계 및 서비스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및 협력방안. 직업재활연구, 13(2), 8-10.
- 나운환 (2007).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이행평가(직업재활 및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11(3), 1-26.
- 박경숙 (2006). 또래접촉놀이를 통한 특수아동의 적응행동변화에 관한 사례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박명숙 (2002). 서울지역 고용주의 정신지체인 현장직업교육과 고용에 대한 인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승희 (2008). 대학내에서 지적장애인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실행과 성과. 경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115-123.
- 박주영 (2003).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유지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10-19.
- 박혜영 (2010). 정서장애학교의 고등학교 현장실습중심 직업교육을 위한 로드맵 개발 사례.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희찬 (2007). 발달장애 특수학교의 지역사회 현장실습 중심 직업교육 실시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15-21.
- 오길승 (2005).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한국적인 적용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특수교육학연구, 38(3), 99-132.
- 우수명 (2005). 마우스로 잡는 SPSS. 서울: 인간과 복지.
- 유정해 (2006). 고용주가 생각하는 장애인의 직업적 성공 요인.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이금옥 (2007). 고기능 자폐 성인의 사무보조직 수행에 관한 사례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상훈, 허 석 (2004). 정신지체 특수학교 고등부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4(2), 169-196.
- 이상진 (2001). 자폐인의 직업재활과 고용. 장애인고용, 42, 46-67.
- 임경원 (2005). 자폐성 장애인의 직업유지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경원, 곽승철 (2005). **자폐성 장애인의 직업유지 요인**. 특수교육학연구, 40(2), 273-300.
- 정동영, 김성애, 김현진, 김형일, 박승희, 한경근 (2006).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8-'12)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도 정책연구보고서.
- 정민호 (2009). **현장특수교육 가을호**. 국립특수교육원.
- 정훈영, 서경희 (2010). **정서장애학교의 학교수준 교육과정 편성 실태 분석**.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1(4), 19-45.
- 조인수 (2005). **발달지체아 생활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 대구: 동아문화사.
- 최은영 (2002).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재활 요인 탐색**.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39-52.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1). **2000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 경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10). **중증장애인 고용 어떻게 풀 것인가?**. 제15차 EDI 정책토론회 자료집 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9-20.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경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ision*. Washington, DC: Author.
- Campbell, P., Hensel, J. W., Hudson, P., Schwartz, S. E., & Sealander, K. (1987). The successfully employed worker with a handicap: Employee/Employer perception of job performance.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10*, 85-93.
- Chamberlain, M. A. (1988). Employer's rankings of factors judged critical to job success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11*, 141-147.
- Olney, M. F. (2000). Working with autism and other social-communication disorders. *Journal of Rehabilitation, 66*(4), 51-56.
- Sitlington, P. L., Clark, G. M., & Kolstoe, O. P. (2006). Transition education and services for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Needham Heights: Allyn & Bacon*.

Field-Oriented Vocational Education's Effects on the
Vocational Success and Job Production Ability among
Students with Autism

Kim, Gil Tae

Hankuk Yukyoung School · Dept. of Rehabilitation, Graduate School, Nazarene Univ.

Jung, Hoon Young

Hankuk Yukyoung School · Dep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Daegu Univ.

Kim, Jung Woo

Dept. of Social Welfare, Sung Kyun Kwan Univ.

<Abstract>

This study sets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ield-oriented vocational education's on the vocational success elements, which have important influences on the employment of students with autism.

The participants include eleven(11) students with autism attending Y Special School for the students with an emotional disability in Seoul, and they received field-oriented vocational education's at five(5) local organizations including one(1) library and four(4) post offices for four(4) hours a day, five(5) times a week through forty three(43) weeks in total during the period between March 2, 2009 and December 31, 2009. Then, they took a pre-post test in four(4) areas of vocational success elements with an evaluation paper, and were put to direct performance assessment in one(1) area.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field-oriented vocational educa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personal, social, vocational ability, and perception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element of the vocational success elements.

Second, it also turned out to be effective on the acquirement and maintenance of job production ability including job productivity and wrong performance.

The results indicate that field-oriented vocational education's around school should be activated in the community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among autistic students in the community through work after school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it was discussed that more specific methods and procedures about field-oriented vocational education are needed and further researches through diverse participants and research design and procedures be employed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 students with autism, field-oriented vocational education, vocational success, job production ability

<부록 1> 현장중심 직업교육 내용

영역	목표	항목	내용
직업생활	직업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생활 기능을 익히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상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청소하기	청소할 곳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청소 도구 준비하기
			청소 도구별 사용법을 알고, 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청소하기
			청소 후 쓰레기 분리와 뒷정리 바르게 하기
		단정한 옷차림하기	평소에 몸을 정기적으로 씻고, 작업 후에도 몸을 깨끗이 하기
			평상복, 외출복, 작업복 등을 상황에 맞게 갈아입기
			스카프, 목도리, 넥타이, 장식품, 화장 등으로 자신을 단정하고 아름답게 나타내기
			옷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세탁하고 관리하기
		적절한 대인관계 유지하기	다른 사람의 요구를 바른 자세로 듣고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상대방에게 적절히 표현하기
			주변의 사람이나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상황에 맞게 바른 자세로 인사하기
			자신의 맡은 일을 스스로 처리하기
			직장 상사의 호칭과 대하는 방법 알기
		전화 예절 익히기	핸드폰 바르게 사용하기
			필요한 곳에 전화를 걸고 용건 이야기하기
			상황에 맞게 예절을 지키며 통화하기
		금전 관리하기	필요한 물건 구입을 계획하기
			예산에 맞게 지출하기
			금융 기관에서 통장과 카드 등을 이용하여 입·출금하기
		지역사회 이동하기	대중교통 수단의 종류를 알고 목적에 맞게 이용하기
			목적지까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기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필요한 예절 익히기
		여가 생활하기	여가 활동과 일과의 관계를 알고 여가 활용 계획 세우기
			혼자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활용하기
			여럿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참여하기

직업준비	직무 관련 신체적 기능, 직무 기초 기능과 태도 등을 익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감각 기관의 정보 활용하기	형태, 색상, 크기 등의 시각적 정보를 통해 작업 용구 및 작업 재료 분류하기		
			다른 사람의 언어나 문서에 의한 지시에 따라 작업 수행하기		
		직무 관련 기초 신체 기능 강화하기	여러 작업에서 요구되는 몸의 자세를 알아보고 작업에 따른 자세를 유지하여 작업 수행하기		
			큰 동작이 요구되는 작업 활동 수행하기		
			작은 동작이 요구되는 작업 활동 수행하기		
			일과 체력과의 관계를 알고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이나 활동하기		
		직무 관련 기초 학습 기능 익히기	직업 생활에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읽고 쓰기		
			직업 생활과 관련된 수를 읽고 활용하기		
			여러 가지 문서 양식에 필요한 내용 기입하기		
			시계, 달력, 일기 예보를 보고 직업 생활에 활용하기		
		직업기능 (도서관)	청구기호에 따라 반납도서를 정리할 수 있다.	도서관 시설알기	도서관의 위치알기
					도서관 각 실의 위치와 역할 알기
도서관 바르게 이용하기					
도서관 이용 시 필요한 바른 예절 알기					
도서관에서 하는 일 알기					
사전기능 익히기	사물함을 이용하여 소지품 보관하기				
	인사하기				
	장갑 착용하기				
사전 분류하기	북트럭 및 반납도서 살펴보기				
	아동실과 모자실 책 분류하기				
	'구문' 도서 분류하기				
한국십진 분류표 알기	'학교추천도서' 분류하기				
	'신간과 구간' 을 분류하기				
	주류표 알기				
	표준구분 알기				
	지역구분 알기				
	국어구분 알기				
청구기호의 따른 서가 배열하기	언어공통구분 알기				
	문학형식구분 알기				
	종교공통구분 알기				
	별치기호 알기				
	분류기호 알기				
	도서기호 알기				
	복본기호 알기				
	권책기호 알기				

<부록 2> 직업적 성공요소 평가지

번호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개인적 요소	기관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적절한 용모·옷차림을 유지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읽기·쓰기 능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긍정적인 태도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일에 대한 의욕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신경질적인 행동을 자제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학습능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활력·신체적 능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기본적 욕구에 대한 표현능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결근을 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사회적 요소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필요시에 감독자와 면담이 가능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상냥하고 친절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적절한 접촉을 통한 사회성이 발달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인사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구별하고 준수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협력하여 공동 작업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직업 능력 요소	시간대비 충분한 생산성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새로운 작업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작업공정을 이해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지시 따르기가 가능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직무를 즐겁게 수행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7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8		능숙한 직무수행능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9		안전수칙을 이행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0		감독자의 교정 지시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31		주어진 일을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2		오류를 판별하며, 수정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3		작업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4	장애인 고용인식 관련 요소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5		비장애인에 비해 직무능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6		장애인 구직자가 찾아온다면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7		사고유발위험이 크지 않을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8		장애인과 함께 일하게 되면 기관의 대고객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9		장애인과 함께 일을 하면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될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0		장애인이라고 해서 더 많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1		장애인들이 대부분 자기 고집이 강하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2		장애인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3		장애인이라고 하여 장애인들끼리 함께 모여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4	장애인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것에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